

# 『독립신문』의 수 표기에 쓰인 한자

- ‘숫자로서의 한자’에 대한 재발견 -

안예리\*

## || 차례 ||

- I. 서론
- II. 한자의 증가와 수 표기 방침의 변화
- III. 한글에서 한자로
- IV. 한자 수 표기의 변이
- V. 결론

### 【국문초록】

『독립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후대로 올수록 한자의 노출이 많아졌다. 일반 어휘에 대해서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에 한자를 병기했지만 유독 수를 나타내는 어휘에 대해서는 한글 대신 한자를 사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1898년 9월 26일자부터 신문 전면에 나타나 폐간 시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독립신문』이 이처럼 수 표기에 한자를 적극 도입하게 된 이유를 밝히는 데에 주목적이었다. 2장에서는 수 표기 방침의 전면적 변화를 입증해 주는 주요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독립신문』의 수 표기에 나타난 한글에서 한자로의 전환이 ‘숫자’로서의 한자에 대한 재발견의 결과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한자 수 표기에 나타난 다양한 변이들을 기술하고 해당 변이들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주제어 : 독립신문, 수사, 숫자, 표기법, 문자 체계

---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

## I. 서론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어문 생활의 변화 중 가장 표면적인 현상은 한자 표기에서 한글 표기로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섰던 『독립신문(1896~1899)』은<sup>1)</sup>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창간 당시 『독립신문』에는 한자가 쓰이지 않았지만 폐간 무렵에는 한자가 안 쓰인 면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독립신문』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한자 표기를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라는 명성이 높은 만큼 그 안에 쓰인 한자 표기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창간호 논설에서 국문 전용 원칙을 천명했던 『독립신문』이 어떤 이유로, 어떤 어휘에 대해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시대를 앞서 갔던 『독립신문』의 국문 전용 원칙이 어떤 지점에서 한계에 부딪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모색했는지를 파악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의 본문에서 일반 어휘의 표기에 쓰인 한자는 언제나 한글에 병기되었지만<sup>2)</sup> 유독 수 표기에 쓰인 한자만은 한글 표기 없이 단독으로 쓰였다. 즉, ‘십팔만(十八萬) 원’이 아니라 ‘十八萬 원’으로 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897년 말부터 일부 기사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1898년 9월

1) 이 연구에서는 『독립신문』의 검토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고신문 서비스를 이용하였다(<http://www.mediagaon.or.kr/>). 이 전자아카이브는 LG상남언론재단에서 1996년에 만든 영인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2) 『독립신문』에서 한자를 병기한 예를 분석해 보면 고유명사(회사명, 연호 등) 또는 사자성어 대해 한자를 병기한 경우, “슐레문”이라 적고 바로 다음에 “南大門”이라고 동의어를 제시한 경우, “일쥬”라 적고 그 뒤에 “七日”로 뜻을 밝혀 적은 경우, “회의會議” 등 일부 2음절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한 경우 등이 있었다.

26일자부터는 전면에 걸쳐 나타났다. 당시 그 어떤 매체보다도 진보적인 언어관과 문자관을 피력하던 『독립신문』이 스스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했던 한자를 수 표기에 적극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자 표기의 대상은 왜 하필 수를 나타내는 단어였을까?

## Ⅱ. 한자의 증가와 수 표기 방침의 변화

### 1. 권호 및 발행일 표기의 변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신문에서 수를 한자로 적느냐 한글로 적느냐는 일차적으로 신문 자체의 표기체에 달려있었다. 국한문 신문에서는 수를 한자로 적고 국문 신문에서는 한글로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벗어난 것이 『독립신문』이었다.<sup>3)</sup>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신문이나 잡지가 모두 한문 또는 국한문으로 발행되던 시대에 국문 전용이라는 파격적인 표기 방침을 택했다. 그리고 창간호 논설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며 순한글 표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창간 당시 『독립신문』의 지면에는 한자가 전혀 쓰이지 않았으며 권호 및 발행일, 그리고 본문 내의 수도 모두 한글로 표기되었다.

---

3) 19세기 말에 국내에서 발행된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등은 본문에서 수를 적을 때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독립신문』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협성회회보』에서는 항목 번호를 제시할 때에 한자를 쓰기도 했지만 그 외의 본문의 수 표기에는 전적으로 한글을 사용했다. 『매일신문』은 각 면의 상단에 ‘一, 二, 三, 四’로 면수를 표시하였지만 본문에서는 수를 한글로 적었다.

그림 1. 『독립신문』제1권 제1호(1896.4.7.) 1면 윗부분



그림 1의 창간호를 보면, “대일권”, “대일호”와 같이 권과 호를 나타내는 수를 한글로 적었고 “스월 초칠일”과 같이 발행일도 한글로 적었다. 또한 본문에서도 “일년에 일원삼십전 한들에 십이전 혼장에 동전 혼푼”과 같이 수를 한글로 표기했다.

하지만 창간된 지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1898년 9월 26일자부터 갑자기 권호와 발행일이 한자로 표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쓰임은 폐간 시까지 계속됐다.

그림 2. 『독립신문』제3권 제148호(1898.9.26.) 1면 윗부분



그림 2의 윗부분을 보면 “데삼권”, “데百四十八호”와 같이 권과 호를 나타내는 수를 한자로 적었고 “건양 원년 四월 七일”, “광무 二년 九월 二

十六일”과 같이 창간일과 발행일도 한자로 적었다. 이러한 수 표기 문자의 변화는 권호와 날짜 표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지면에 걸쳐 일괄적으로 나타났다. 즉, 1898년 9월 26일 이전에는 (1)과 같이 적던 것을 그날부터는 (2)와 같이 적게 된 것이다.

(1) 가. 원산 잇는 일본 인구가 스월 삼십일에 죠슈하여 본즉 도합이 일천 이백 구십 팔명 내에 남이 팔백 이명이요 녀가 스백 구십륙명인디 호슈는 이백 칠십 칠가더라<1896년 7월 11일 2면 잡보>

나. 림실군 삼천 칠십 일량 구돈 룽푼 남원군 일만 이천 이백 이십 른량 팔돈 곡성군 스십 른량 스돈 옥과군 이천 삼십 오량 칠돈 순창군 구천 이백 팔십 이량 이돈...<1897년 4월 20일 3면 각부 신문>

(2) 가. 도합 아디에 一년 립왕 흥는 대한 인민이 一万二千구즘 되는데 상소의 해삼위에 六万여호가 거류한다 흥였스니 이는 아지 못 흥는 말이라<1898년 10월 18일 1면 논설>

나. ...즈기의 집을 三百원에 팔아서 二百원을 만민 모히디 의조 흥였다 나...<1898년 11월 11일 3면 잡보>

이처럼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권호와 발행일의 수 표기 문자가 바뀌고 그와 더불어 기사 본문의 수 표기 문자도 일제히 바뀌었다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 2. 한자의 비율 증가와 수 표기 변화의 관계

이 절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독립신문』 지면에 한자의 노출이 얼마나

4) 하지만 1898년 9월 26일 무렵의 기사나 사고 등에서 수에 관한 표기 원칙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식적 발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수 표기 방침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96년부터 1899년까지 매년 4월 7일자 신문 전면에 사용된 문자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음절 수를 1면당 음절 수로 환산하고 전체 음절 중 한자로 표기된 음절의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한자 표기 중 수 표기가 차지한 비율도 함께 분석해 보았다.

표 1. 『독립신문』 1년 단위 한자 표기 증가 양상

|              | ①<br>1896-4-7 | ②<br>1897-4-7 | ③<br>1898-4-7 | ④<br>1899-4-7 |
|--------------|---------------|---------------|---------------|---------------|
| 면 당 음절 수     | 1,280         | 1,439         | 1,491         | 826           |
| 총 음절 중 한자 비율 | 0%            | 0.2%          | 0.1%          | 10.2%         |
| 총 한자 중 수 비율  | -             | 33.3%         | 25.0%         | 83.4%         |

총 음절 중 한자의 비율을 보면 ④로 오며 갑자기 그 비율이 100배가량 높아졌다. 총 한자 중 수 표기에 쓰인 한자의 비율 역시 ④로 오며 급증하였다. 이상의 계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대로 오며 『독립신문』의 지면에 한자의 노출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가 수 표기에 쓰인 한자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Ⅲ. 한글에서 한자로

『독립신문』은 수 표기에 한해 표기 문자를 한글에서 한자로 바꾸었다. 이는 한두 기사에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전면에 걸쳐 일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는 뚜렷한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편집 방침을 변경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 장에서는 『독립신문』이 창간

시의 원칙을 변경해 수 표기에 한자를 적극 도입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1. 수 표기에 쓰인 한자의 초기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먼저 수 표기 원칙이 일괄적으로 바뀌기 전에 일부 기사에 한해 간혹 나타났던 초창기 한자 수 표기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예외’가 후일 ‘원칙’이 되었다면 초기의 예외적 현상들은 편집 방침 변경을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의 본문에서 수 표기에 한자를 쓴 최초의 예는 1897년 12월 16일자 전보에서 발견되는데 이때 한자는 매우 긴 금액의 표시에 쓰였다.

(3) 일본 전국 세입이 일년에 디세가 三千八百六萬八千九百九十一元이요 부민(富民)세가 一百九十萬五千六百九十六元이요 술세가 二千九百八十二萬三千八百五十二元이요 담뱃세가 二百二十三萬四千一百四十六元이요 장(醬)세가 一百四十七萬九千九百九十四元이요 장스세가 五百八十七萬四千一百六十八元이요 해관세가 六百六十二萬六千八百二十九元이라더라<1897년 12월 16일 2면 전보>

『독립신문』에 쓰인 최초의 한자 수 표기가 ‘38,068,991’, ‘195,696’, ‘29,823,852’, ‘2,234,146’ 등의 큰 단위의 복잡한 금액 표시였다는 점은 이러한 수를 적을 때 한글 표기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케 해 준다.<sup>5)</sup>

5) 물론 당시 (3)은 예외적인 쓰임이었고 예1)과 같이 큰 단위의 복잡한 금액도 한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1) 작년 일년에 일본서 외국과 장스흔는디 슈립 품은 일억 삼천 만원이요 슈출품

그 다음에 등장한 1898년 4월 14일 3면 판보의 한자 수 표기 역시 앞서와 유사한 종류의 긴 목록이었다.

- (4) ○강원도 신지 三百九十六結七負一東 허감 구직 四十二結五十九負五束 허감 미괴결(未기結) 一百二十三結三十二負七束 허감 ○충청 북도 신지 六百九十結七十九負九束 허감 구직 一百三十八結六十七負四束 허감 ○충청 남도 신지 二千二百八十七結八十三負三束 허감 구직 六百五十一結七十五負五束 허감…<1898년 4월 14일 3면 판보>

그 후의 한자 수 표기는 긴 목록이 아니라 한두 줄 정도에 불과하지만 세 자리 이상의 큰 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 (5) 가. 작년에 수에쓰 운하 運河로 왕릭흔 선척 수효가 합 二千九百八十九 척인디 영국 빅 수효가 一千九百五척인즉 작년에 비 하면대단히 줄었 다더라<1898년 7월 20일 4면 외국 통신>
- 나. 삼십년 전에 미국 남북 전쟁에 죽은 사람이 九萬七千명인디 그 싸흠 동안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十九萬四명인즉 병이 싸흠 보다도 더 무 셔은 일이라더라<1898년 7월 30일 4면 외국 통신>

이때 한자로 표기된 수는 기사의 목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5가)는 수에쓰운하를 통과한 선박 수의 증감을 전하는 보도 기사로 통과 선박의 합계에 해당하는 수와 영국 선박 수에 해당하는 수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5나)는 남북전쟁 중 전쟁 사망자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기사로, 사망자 수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5나)를 보면, 사망자 수와 달리 ‘삼십년’은 한글로 적어 기사의 초점이 되는 수와

---

은 일억 스천륙백 이십 스만원이니 일천 오백 만원가량이 국중에 더 드러 왔다더라 <1896년 7월 11일 2면 잡보>



그렇지 않은 수에 대한 표기 문자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독립신문』은 창간 당시부터 가독성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창간호 논설을 보면 기존의 순한글 표기가 갖는 가독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독립신문』이 발행되던 19세기 말은 근대 세계로의 본격적 전환이 시작되던 때로, 근대의 세계는 수치화에 근거한 세계라 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서는 국내외 자본의 흐름이나 문물의 교류 현황 등을 담은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는 수량적 정보가 기사 전체의 핵심 내용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수량적 정보에 대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음문자 위주의 본문에서 가독성이 높은 표의문자를<sup>6)</sup> 사용해 부분적으로 한자 표기 시험을 해 보다가 후일 전반적으로 편집 방침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숫자’로서의 한자의 재발견

『독립신문』에서 수 표기에 쓰인 한자는 ‘숫자’로서 사용된 것이다. 한자 체계 전체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한자들만 선택적으로 수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개개의 글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이루는 문자 체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립신문』에서 수 표기에 쓰인 한자는 바로 ‘수를 나타내는 문자 체계’로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국한문 문헌에 쓰인 한자와 차별성을 갖는다.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숫자를 “수를 나타내는 글자, 1, 2, 3, …… 또는 一, 二, 三, …… 따위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말에서 수를 나타내는 한자와 아라비아숫자는 숫자로 여겨지는

6) 이익섭(1992:404)에서도 “漢字나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表意文字가 表音文字보다 視覺性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것이다. 그렇다면 ‘일, 이, 삼…’은 어떨까? ‘일, 이, 삼…’과 ‘1, 2, 3…’, 그리고 ‘一, 二, 三…’은 의미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동일한 뜻을 나타낸다. 어휘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들은 모두 수사라는 어휘 부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있다. ‘一, 二, 三…’과 ‘1, 2, 3…’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인 숫자 체계를 이루지만 ‘일, 이, 삼…’은 숫자 체계가 아닌 한글 문자 체계의 일부인 것이다.

고전 한문이나 현대 중국어를 적는 데 쓰이는 한자 체계 안에서 ‘一, 二, 三…’은 별도의 숫자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말 수 표기에 쓰이는 한자는 별도의 숫자 체계를 이룬다. 19세기 말에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여전히 한자가 주된 문자로 사용됐지만 『독립신문』에서만은 오늘날처럼 한글이 제1의 문자로 기능했다.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다른 모든 어휘는 한글로 적으면서 유독 수 표기에만 한자를 사용한 것은 수를 나타내는 한자들을 숫자 체계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독립신문』 국문판에서의 ‘한글’과 ‘한자 숫자’의 관계는 영문판에서의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의 관계에 대응된다. 이는 단지 결과를 놓고 볼 때 발견되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의 혼용이 한글과 한자 숫자의 혼용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숫자로서의 한자가 도입된 것은 윤치호가 주필로 있을 때의 일이지만 그에 앞서 서재필이 주필로 있을 때에도 『독립신문』에서는 숫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897년 2월 18일자에는 외국과의 통상을 위해 세계 만국에서 쓰는 숫자를 배워 뒤야 한다는 논설이 게재됐다.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6) 가. 세계 각국에서 슈즈는 다 맛찬 가지라 통상이 되야 상무가 흥황 흥거

드면 불가불 외국 산학을 써야 세움 치기가 쉽고 또 히 노흔 세움을 아모가 보아도 알아 볼터이라 그런고로 말은 서로 외국 사름과 통치 못홀지라도 문서는 서로 알아 보게 하여야 조선사름들이 촌촌 태서 각국 사름 호고 장수를 못 하게 될터인고로 우리가 오늘날 외국 슈즈를 여귀 출판 하여 조선 인민들이 세계 만국에서 쓰는 슈즈를 알아 보게 호노라<1897년 2월 18일 1면 논설>

나. 一 혼일즈는 1 二 두이즈는 2 三 석삼즈는 3 四 녀스즈는 4 五 다스오즈는 5 六 여설륙즈는 6 七 일곱칠즈는 7 八 여덟팔즈는 8 九 아홉구즈는 9 十 열십즈는 10 十一은 11 十二는 12 …<1897년 2월 18일 1면 논설><sup>7)</sup>

(6가)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숫자가 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 여러 나라와 활발히 통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만국 공통의 숫자를 배워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그에 이어 (6나)에서는 한자 숫자에 대응시켜 아라비아숫자를 하나씩 소개하였다. 창간 때부터 영문판에는 아라비아숫자가 쓰였지만 국문판에 아라비아숫자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였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논설에 드러난 숫자에 대한 관념은 향후 숫자 표기를 위한 별도의 문자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독립신문』이 선택한 그 별도의 문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한자 숫자였다.

수 표기에 한자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은 윤치호가 주필 자리에 오른 지 4개월이 지난 때였다. 윤치호는 1898년 5월 12일부터 주필로 활동하며 신문사의 운영을 총괄했고 신문의 체제와 지면의 편집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갔다. 1898년 7월 1일부터는 발행 주기를 격일간에서 일간으로 바꾸었으며 논설과 잡보에 제목을 달기 시작했고 보도 태도 역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변화시켜 나갔다(채백 2006:152). 이처럼 윤치호는 『독립

7) 세로쓰기 된 원문에서 아라비아숫자는 오른쪽으로 90도 기운 채 인쇄되어 있다.

신문』의 지면 개혁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는데 1898년 9월 26일부터 수 표기에 한자를 전격 도입한 것 역시 그가 추진한 지면 개혁 중 하나였던 것이다.

『독립신문』이 수 표기에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을 국문 신문에서 국한문 신문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수 표기에 한자를 도입한 것은 한자라는 문자 체계 자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자 중 수를 나타내는 문자들만 골라 이를 숫자로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신문』 스스로가 한자를 구시대의 산물로 규정하였지만, 수 표기를 한글에서 한자로 바꾼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수를 나타내는 어휘 부류에 대한, 그리고 문자 체계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즉, 『독립신문』 수 표기에 쓰인 한자는 당대의 국한문 문헌에 쓰이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새로운 발견’의 산물이었다.

### 3.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의 표기

『독립신문』이 전 지면에 걸쳐 한자 숫자를 도입하였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수를 한자로 적은 것은 아니었다. 한자어 수사는 일괄적으로 한자로 표기했지만 고유어 수사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를 유지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독립신문』에 쓰인 수사의 용례를 통해 기수사, 서수사, 수관형사의 목록을 제시한다.

#### (7) 가. 기수사

a. 한자어: 일, 이, 삼, 스, 오, 륵, 칠, 팔, 구, 십 …

b. 고유어: ᄒ나ᄒ/ᄒ나/하나/ᄒ나, 둘,<sup>8)</sup> 서ᄒ/셔ᄒ/셋, 너ᄒ/넛, 다ᄒ/

8) 고유어 기수사 중 ‘ᄒ나ᄒ, 서ᄒ/셔ᄒ, 너ᄒ’은 종성의 ᄒ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둘ᄒ’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섯, 여섯/여섯, 일곱/닐곱, 여덟, 아홉, 열 …

나. 서수사

a. 한자어: 데일, 데이, 데삼, 데스, 데오, 데륙, 데칠, 데팔, 데구, 데십

b. 고유어: 첫지, 둘지, 세지/셋지/셋지, 넷지, 다섯지, 여섯지, 닐곱지, 여덟지, 아홉지, 열지 …

다. 수관형사: 흔/한, 두, 세/세/셋/석/석/서, 네/넷/넉/너, 다섯/닷, 여섯/여섯/엿, 일곱/닐곱, 여덟/여덟, 아홉, 열 …

1898년 9월 26일 이후 수 표기에 한자를 전격 도입한 이후로 한자 표기의 대상이 된 것은 한자어 수사였다. 다음은 한자어 수사가 한자로 표기된 예이다.

(8) 가. 광무 三年 十一月 十六日 의정부 의정 서리 찬정 김규홍 만민 공동쇼  
첨좌하 정부에서 만민의 四츠 상쇼 스의를 알외여 직가 물은 초건을  
좌에 그지 흐노라<1898년 11월 17일 4면 별보>

나. …턴하에 반포 흐읍신 홍범 (洪範) 十四도는 이것이 이 중흥의 관석  
화균(關石和勻)이어늘…<1898년 10월 8일 1면 논설>

다. 서양 유명 흔 박스가 구미 여덟 나라에 부요 흐것을 비교 흐엇는디 미국  
은 미국돈으로 八百十七億五千萬원이요 영국은 五百九十億三千万  
원이요…<1898년 10월 3일 4면 외국 통신>

위의 예에서는 연, 월, 일과 횃수(차), 법 조항의 번호(도), 금액(원) 등을 나타내는 한자어 수사가 한자로 표기되었다. 반면, 고유어 수사를 적을 때에는 여전히 한글이 쓰였다.

(9) 가. 우에 등지 흔 여섯 도목과 또 황상 폐하 씨서 나리신 쵸서 중 다섯 도목  
을 국문과 한문으로 번력 흐야 十萬장을 인출 흐여 서울 각처와 十三  
도 각군 인민에게 一一히 전과 흐여…<1898년 11월 1일 1면 논설>

나. 청국 기혁 헝기는 리흥장이나 장지동 두 사람 중에 맞 헝는것이 좇기로  
싱각 헝다더라<1898년 11월 04일 4면 외국 통신>

다. 서양 이약이에 어린 양 헝 마리가 넛물에 가서 물을 먹을시 호랑이  
헝 놈이 와서 보고 눈을 부릅쓰고 꾸지저왈 …<1899년 01월 13일 1면  
논설>

위의 예를 보면 ‘다섯/여섯 도목’, ‘두 사람’, ‘헝 마리’, ‘헝 놈’ 등과 같이  
고유어 수사를 적을 때에는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가)를  
보면 한 문장에서도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표기를 철저히 구별했음  
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의 사용 영역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  
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 수 표현의 경우는 한자어 수사  
와 고유어 수사가 모두 쓰였다. 아래의 예에서 a는 한자어 수사의 쓰임을,  
b는 대응되는 고유어 수사의 쓰임을 보여준다.<sup>9)</sup>

(10) 가. 시간(시)

a. …미일 오전 七시에 썬나서 유현樞峴 七시 六분 우각동 七시 十一분

9) (10)의 ‘七시’, ‘二명’ 등에 대해 해당 한자가 실제로는 고유어 수사로 발음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일곱 시’, ‘두 명’으로 읽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표기 차원에서는 ‘7시’, ‘2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 표기에 한자  
가 전격 도입되기 전에 해당 수를 한글로 적은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면 ‘칠 시’, ‘십  
시’, ‘삼 명’, ‘륙칠 필’ 등의 표기가 확인되기 때문에 (10)의 ‘七시’, ‘二명’이 ‘칠 시’,  
‘이 명’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예1) 우체시간표 한성낙의 모히는 시간 오전 칠시 십시…<1896년 04월 07일 3면  
광고>

예2) 희천 군수가 이달 륙일에 장교 최준덕을 보내여 비도 삼명을 잡아 군덕에 보내  
엿는 고로…<1896년 08월 20일 2면 잡보>

예3) 황단 남쪽 대문 간에다가 청인들이 차 쓰는 노식 륙 칠필을 밤<sup>늦</sup> 미여…<1898  
년 07월 13일 4면 잡보>

부평 七시 三十六分 쇼스 七시 五十分 오류동 八시 十五分 로랑진  
八시 四十分에 당도 하고...<1899년 09월 16일 3면 잡보>

- b. 직동 관립 쇼학교에서 모모 관인들이며 외타 시무에 주의 호는 제씨  
 들이 밤마다 일곱시 브터 열시 썻지 일어를 비호는디...<1899년 05월  
 29일 3면 잡보>

나. 인원(명)

- a. 원주 디방디 참령 권용철씨가 병명 二명을 보너여 돈 四百여량을  
 썻서 갖다니 참 그러 호지<1899년 01월 09일 3면 잡보>
- b. 어느 목을 협판 호분이 남여를 타고 길노 지너는디 그 짜라 다니는  
 쇼위 하인 두명이 남여 좌우며 혹 남여 압해서 괴세 잇게 벽테를 호  
 는디...<1899년 03월 06일 3면 잡보>

다. 가축의 수(필)

- a. 물 四필과 라귀 三필과 쇼 二百六十三필이 표실 되얏으며...<1899년  
 11월 28일 3면 잡보>
- b. 군슈 디봉녕씨가 엄적 홀슈 업서서 물 두필를 남정철씨의게 보너여  
 뒤을 보아 달나 호고 리병균은 물 호필을 심상훈씨의게 보너엿더  
 니...<1898년 11월 26일 4면 잡보>

(10가a)에서처럼 시간 표현에 한자어 수사가 쓰인 예는 우체 시간표나  
 철도 시간표 등 시간을 나열한 기사에 주로 등장하였다. (10나a)와 (10다a)  
 에서는 각각 사람과 가축의 수를 셀 때 한자어 수사가 쓰였는데, 이 두 경  
 우 모두 오늘날에는 수가 10보다 크면 고유어나 한자어 수사를 쓸 수 있지  
 만 10보다 작으면 고유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독립신문』에는  
 위와 같이 10보다 작은 수가 올 때에도 한자어 수사를 쓴 예들이 종종 있었  
 다. (10)에서처럼 동일한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  
 사가 구별 없이 쓰이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한자어 수사는 한자로, 고유어  
 수사는 한글로 표기되었다.

#### IV. 한자 수 표기의 변이

『독립신문』에서 한자로 적힌 수사의 용례를 검토하다 보면 몇 가지 변이 양상이 확인된다. 100이나 1,000을 적을 때 앞에 ‘一’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며, 10, 100, 1,000 등 10진법의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도 일정치 않았다. 또한 101과 같이 한 자리가 비었을 때 이 빈 자리의 표시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독립신문』 한자 수 표기에 나타난 변이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1. ‘一百’과 ‘百’

『독립신문』의 권호가 한자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후로 발행호수의 백 단위 수 표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독립신문』 각 권의 100호를 비교해 보면 그림 3~5와 같이 1896년에서 1898년까지는 ‘백호’로, 그림 6과 같이 1899년에는 ‘一百호’로 쓴 것이 확인된다.

그림 3. 1896년 11월 24일 제1권 제100호



그림 4. 1897년 8월 24일 제2권 제100호





그림 5. 1898년 7월 29일 제3권 제100호



그림 6. 1899년 5월 6일 제4권 제100호



신문 전면에 걸쳐 수 표기 문자가 한자로 바뀐 1898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발행호수 표시에서 ‘백’ 앞에 ‘일’을 붙이는가의 여부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본문의 수 표기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발행호수가 ‘一百’으로 바뀌기 전에도 본문에는 ‘백’과 ‘일백’이 모두 쓰였고, 발행호수가 ‘一百’으로 바뀐 이후로도 본문에는 여전히 ‘百’과 ‘一百’이 모두 쓰였다. 하지만 이때 ‘百’과 ‘一百’을 아무 원칙 없이 혼용한 것은 아닌 듯하다. 각각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일정한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에서 ‘백’과 ‘일백’의 쓰임을 비교해 보면 ‘일백(一百)’은 정확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였고 ‘백(百)’은 어림잡은 수치나 비율을 나타낼 때 혹은 비유적 표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확한 수량을 나타내는데 쓰인 ‘일백(一百)’의 용례이다.

- (11) 가. 감옥서에 중당이 일백 삼십 칠명 한성 직판쇼 죄인이 일백 두명 고등 직판쇼 죄인이 팔명 합 죄인이 이백 삼십 칠명이더라<1897년 04월 06일 3면 잡보>

- 나. 고등 직판쇼에서 ... 은화 구빅원을 슈취 혼 죄로 톱 일빅 증역 종신에  
쳐 흥갸다고 흥엿스나<1897년 04월 27일 4면 각부 신문>
- 다. 아라샤에서는 이억 팔천 일빅 오십 만원ियो...<1896년 06월 04일 1면  
논설>
- 라. 세출 총계 六百四十七万一千一百三十二원 <1899년 03월 29일 4면  
잡보>

(11가)는 137명, 102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원 수를, (11나)는 태형 100대라는 형량을, (11다)는 281,500,000원이라는 액수를, (11라)는 6,471,132원이라는 액수를 나타낸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를 나타낼 때는 ‘일빅(一百)’이 쓰였다.

반면 구체적인 숫자를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일(一)’을 떼는 경향이 있었다.

- (12) 가. 미국 센르누이스란 동리에서 큰 바람이 니러나 사름 빅여명이 죽고...  
<1896년 06월 13일 3면 외국 통신>
- 나. 빅지 학당 학도들이 근 빅여명이 되느디 목요일 날이면 독립 신문사  
장이 마르치는 학문을 잘 빅혼다더라<1896년 06월 06일 2면 잡보>
- 다. 이 던기 괴운은 百리 밧게도 가고 슈千리 밧게도 가느디 머나 갓가오  
나 그 괴운의 힘이 다 갓흔지라<1899년 04월 06일 1면 논설>
- 라. 전쥬 진위디에서 포샤 주인을 차덩 흥야 흥달에 쇼외 고기 근 百근식  
육쥬 근 百병식을 의례히 갑도 아니 주고 공히 들여 쓰고...<1898년  
11월 04일 3면 잡보>

(12가)의 ‘빅여명’, (12나)의 ‘근 빅여명’, (12다)의 ‘百리’, (12라)의 ‘근 百근’, ‘근 百병’에서 ‘빅(百)’은 정확히 100이 아니라 그 정도 되는 수를 어렵잡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어떤 값을 다른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나 비율 계산 시에도 ‘일’을 떼고 쓰는 경향이 보인다.

(13) 가. 영국 정부에서 일년에 쓰는 부비가 금전으로 오억만원인디 그 돈을 시간으로 분과 하야 볼진디 익분 동안에 금전 익원식을 쓰는것이라  
<1898년 04월 21일 3면 외국 통신>

나. 여기와서 신문을 가져다가 팔면 열장에 여들장만 세음하고 익장에 여들장만 세음홈<1896년 04월 07일 3면 사고>

다. 전일에 비교 하면 서반아 속디가 익분의 일이 못 되고…<1897년 01월 21일 1면 논설>

라. 우리는 브라진디 조선에 대쇼 인민은 크고 적은 일 간에 놈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 아니 하는 형실을 본 바으면 태서 각국 사름들이 조선 사름들을 익빈나 낫게 알타이요…<1896년 06월 27일 1면 논설>

(13가)에서 ‘익원’은 일 년 소요 비용 오억만 원을 분 단위로 나누어 환산한 값이고 (13나)에서 ‘익장’은 신문 값을 계산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13다)의 ‘익분의 일’이나 (13라)의 ‘익빈’는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一)’의 쓰임은 천이나 만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4) 가. 음녀 칠월 이십 팔일 비도 천여명이 병정 복식도 입고 익의도 입고  
홍희군에 들어 온다 하기로…<1896년 09월 19일 2면 잡보>

나. 오늘이 독립 신문 시작하는 데 이회 싱일이라 데 일호가 일천 팔백 구십 른년 스월 칠일에 처음으로 출판이 되엇더라<1898년 4월 7일 3면 잡보>

다. 만일 万명에서 六千명문 상쇼 하야 엇지 하니 신용 홀슈 업다는 식들을 분명히 대황데 폐하의 알외거드면…<1898년 11월 26일 1면 논설>

라. 한성 우체사에 스월 우체 물슈가 일만 팔백 스십 봉인디 삼월 보다

구빅 팔십 삼봉이 더ㅎ다더라<1896년 05월 05일 2면 잡보>

(14가)의 ‘천여명’이 정확히 1,000명이 아니라 그에 가까운 수를 말하는 반면, (14나)의 ‘일천’은 1896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 (14다)의 ‘만명’이 정확히 10,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 정도의 수를 나타내는 반면 (14라)의 ‘일만’은 10,840봉이라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는 데 쓰였다.

이처럼 어떤 수를 정확히 나타낼 때에는 ‘일’을 붙이고 대략적인 수를 나타낼 때에는 ‘일’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이 주된 쓰임이긴 하지만 예외도 보이기 때문이다.<sup>10)</sup>

## 2. 자릿수에 따른 십진법 표기

10 이상의 수를 적을 때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면 십진법의 단위를 별도로 밝힐 필요 없이 자릿수에 맞추어 쓰면 된다. 하지만 한자로 적을 때는 십진법에 따라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등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즉, 333은 ‘三百三十三’으로 적어야 한다.

『독립신문』 발행 당시는 아직 우리말 글쓰기에 아라비아숫자가 도입되기 전이었고 십진법의 표시 방식 역시 전통적 방식을 따를 때였다. 그런데 후대로 오며 『독립신문』의 특정 기사에 자릿수에 근거한 수 표기의 예가

10) 아래의 예1)에서는 대략의 수를 나타내면서 ‘일빅’을 사용했고 예2)에서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면서 ‘빅’을 사용했다.

예1) …히군 우테샤에 팔월 경비 일빅여원을 혼폰도 주지 아니흔 식돛에 <1897년 10월 02일 독립신문 3면 각부신문>

예2) 본년 구월 이십 팔일 데 빅십오호 신문 잡보에…<1897년 11월 16일 독립신문 3면 잡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립신문』에는 종종 “우테 총사 우테물 집분 발착표”가 게재됐는데 해당 기사 내의 수 표기에서 십진법 단위 표시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먼저 변화 이전의 예를 살펴보겠다.

- (15) 가. 광무 원년 십이월 분에 한성 우테 총사 우테물 집신 분전과 발송도착 혼 총계가 삼만 삼백 오십 삼통인즉 십일월 분에 비교 하면 삼천 일백 오십 른통이 더 부러더라<1898년 01월 15일 3면 잡보>  
 나. 본년 삼월분 한성우테 총사 우테물 집신은 一萬五百이요 분전은 六千六百二十三인즉 합계가 一萬七千一百二十三이요 발송은 一萬一千六百三十七이요 도착은 七千八百六十二이니 합계가 一萬九千四百九十九라 총계 하면 三萬六千六百二十三이니 본년 이월로 비교 하면 삼월 분이 六千七百十五통이 더느러더라<1898년 04월 16일 2면 관보>

(15가)에서는 우편물의 수량이 한글로 표기됐고 (15나)에서는 한자로 표기됐다. 표기 문자는 다르지만 위의 두 예에서는 모두 ‘십(十), 백(百), 천(千), 만(萬)’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전통적인 방식대로 십진법의 단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15나)가 게재된 지 약 보름 후부터는 변화가 생겼다. 자릿수에 맞춰 해당 숫자를 씌으로써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천의 자리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 (16) 본년 스월 분 한성 우테 총사 우테물 집분 발착은 집신은 一一九六零이고 분전은 六六六八이니 합계 하면 一八六二八이고 발송은 一三八五七이고 도착은 八七七一이니 합계 하면 二二六二八인즉 총계 하니 四一二五六이라 본년 삼월도로 비교 하면 스월 분이 四六三四통이 더느러더라<1898년 05월 07일 4면 잡보>

위의 예에서 ‘一一九六零’은 ‘11,960’을, ‘六六六八’은 ‘6,668’을 나타내며 나머지 수 표기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자릿수에 따라 숫자를 배열하는 방식은 우체총사 관련 기사에만 나타났지만 일단 변경된 다음부터는 폐간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필 우체물의 양을 나타내는 기사에만 자릿수에 따른 수 표기가 도입된 것은 해당 기사에 제시된 수가 큰 단위의 복잡한 수라는 점, 그리고 사칙연산이 사용됐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릿수에 따라 십진법을 표시하면 긴 수를 적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124,329’를 적을 때 ‘一三四三二九’라고 쓰면 ‘一十三万四千三百二十九’라고 쓸 때보다 간결하다. 또한 우체총사의 기사에서는 항상 합계와 총계를 제시하고 한 달 전의 수치와 비교해 가감된 양을 표시했는데 이러한 연산 시 자릿수에 따른 표기가 가독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숫자로서 한자를 전면에 도입한 뒤로도 기사의 성격에 따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 3. ‘영(零)’의 사용

자릿수에 따라 십진법의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영(零)’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三百三’과 ‘303’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십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아도 해석에 문제가 없지만 후자는 ‘0’이 없으면 자릿수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

우체물의 수량을 밝힌 기사에서 자릿수에 따른 표기 원리가 선택된 이후로는 ‘영’을 사용해 십진법 단위의 빈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이때 ‘영’을 어떤 문자로 적는가에 있어서도 시간에 따른 변화가 확인된다. 아래의 예는 우체총사 기사에 ‘영’이 쓰인 예를 시간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 (17) 가. 본년 스월 분 한성 우테 총사 우테물 집분 발착은 집신은 一一九六零이고 분전은 六六六八이니…<1898년 5월 7일 4면 잡보>
- 나. …발송은 二一零四零이요 도착은 八四一七이니 합계 하면 二九四五인즉 총계 하면 五五七一三이라 본년 오월노 비교 하면 一零三九四통이 더 느렀다더라<1898년 07월 14일 4면 잡보>
- 다. …한성 우테 총사 우테물 집분 발착표에 집신은 五五八〇〇이며 분전은 九四八六인즉…<1899년 2월 21일 3면 잡보>
- 라. …발송은 五一三〇八이고 도착은 九七一八이니 합계가 六一〇二六이라<1899년 4월 3일 4면 잡보>
- 마. 六월에 한성 우테총사 우테물과 집신은 六五〇七四요 분전은 九五七〇이니 합계 하면 六五六四四요…<1899년 07월 19일 4면 잡보>

(17가)와 (17나)에는 한자 ‘零’이 쓰였고 (17다)~(17마)에는 ‘〇’이 쓰였다. 지금부터 제시할 예들은 『독립신문』 전체로 봤을 때 극히 예외적이지만 ‘〇’의 쓰임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十, 百, 千’ 등 십진법 단위가 되는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빈 자리를 ‘〇’으로 표시한 것이다. 아래의 두 예는 각각 ‘한국 무역’과 ‘국늬 무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 (18) 가. 무역의 히마다 부러나는것을 五기년 간 비교표도 좌에 게지 혼것이  
갑오년에는 一千一百〇五万七千八百九十二방 을미년에는 一千二  
백八十八万四千二百三十二방…<1899년 9월 22일 2면 잡보>
- 나. 본년 중에 국늬 무역의 총계가 二百九十三万九千〇八十八원인디 각  
지향장과 미 지향흔 디방을 구별 흘진디 각 지향장의 무역은 二百四  
十五万八千五百六十八원이 되고 미 지향 디방에 무역은 四十八万  
〇五百二十원이 되는디 작년 무역에 비교 흐거드면 좌와 갓다더라  
<1899년 9월 22일 3면 잡보>

(18가)의 ‘一千一百〇五万七千八百九十二’는 11,057,892를 적은 것으로 십진법의 단위마다 ‘十, 百, 千, 万’을 쓰면서도 십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〇’으로 표시했다. (18나)의 ‘二百九十三万九千〇八十八’는 2,939,088을 적은 것으로 백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〇’으로 표시했다. 한편 (18나) ‘四十八万〇五百二十’은 480,520을 적은 것으로 천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〇’으로 표시했지만 마지막의 일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19)는 ‘〇’의 사용에 일정한 원칙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논의의 초점이 되는 부분에 ①~⑥으로 번호를 붙였다.

(19) 병신년에는 ①一千二帛八十四万二千五帛〇九방 癸酉년에는 ②二千三百五十一万一千三百五十〇방 무술년에는 ③二千四帛七十万〇二千二百三十七방인디 외국 쇼산 각 물품 ④五十九万〇四十五원 각 지향장 작년 수출 한국 쇼산 각 물품 ⑤二十七万五千七원 … 외국 쇼산 각 물품 ⑥二十万〇六千九百〇九원 … <1899년 9월 22일 3면 잡보><sup>11)</sup>

①은 12,842,509를 적은 것으로 십의 자리가 비는 것을 ‘〇’으로 표시하였고 ②는 23,511,350을 적은 것으로 일의 자리가 비는 것을 ‘〇’으로 표시하였다. 일의 자리에 ‘〇’를 쓴 것은 (18나)에서의 쓰임과 차이가 있다. 한편 ③과 ⑥은 각각 24,701,237, 206,909를 적은 것으로 만의 자리가 비는 것을 ‘〇’으로 표시했지만, 십만 자리의 7과 2를 한자로 ‘七十万’, ‘二十万’이라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〇’은 불필요하다. 만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십만 자리의 수를 적으려면 ‘몇十万’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자 수 표기 체계에는 ‘〇’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④는 590,045를

11) 이 기사의 원문에서 100이 일부는 ‘帛’으로 일부는 ‘百’으로 표시됐는데 일관성이 있지는 않았다.



적은 것으로 백의 자리와 천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지만 ‘○’을 한 번만 썼다.

『독립신문』의 일부 기사에 나타난 ‘○’의 이러한 쓰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독립신문』의 발행 시기가 서구의 학문이 급격히 유입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 한문식 수 표기와 근대적 아라비아숫자식 수 표기가 뒤섞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속단하기 전에 먼저 전통적인 수 표기 방식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세종의 명에 따라 편찬된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은 해와 달 그리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5성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기록한 일종의 천체력으로, 여러 관측 값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 표기 방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이 책에서는 ‘3,151,075분’을 “三百一十五萬一千〇七十五分”로 적었고 ‘9,062분 80초’를 “九千〇六十二分八十秒”로 적어 백 단위가 비었음을 ‘○’으로 나타낸 것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독립신문』의 예와 일치하는 쓰임이다. 한편, ‘108,753분 84초’를 “一十〇萬八千七百五十三分八十四秒”로 적어 만 단위가 비었음을 ‘○’으로 나타냈다.<sup>12)</sup> 또한 세종대에 복간된 수학책 『상명산법(詳明算法)』에서도 “一百〇二”와 같이 ‘○’의 쓰임이 확인되는 등<sup>13)</sup> ‘○’은 오래 전부터 수 표기에 사용되어 왔다.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한문식 수 표기에 ‘○’이 쓰인 이유를 밝히는 일은 이 글의 소임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이상의 예를 통해 『독립신문』에 나타난 ‘○’의 쓰임이 서구식 수 표기의 영향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을 따른 것

12) 이 단락의 분석은 김용운·김용국(2009:247)에 제시된 원문 이미지를 토대로 한 것이다.

13) 이는 김용운·김용국(2009:289, 290)에 제시된 원문 이미지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독립신문』은 전통 사회가 근대 사회로 변모해 가던 과도기적 시기에 그 변화의 선봉에 섰던 신문이다. 근대 세계의 자본과 물류의 유통,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에서는 수량적 정보가 기사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창간 때부터 순한글 표기와 띄어쓰기 도입 등 수용자의 관점에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적극 고려했던 『독립신문』은 수량적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이 아닌 제2의 문자 체계를 도입해 1898년 9월 26일자부터 한자어 수사를 모두 한자로 적기 시작했다.

『독립신문』에 쓰인 한자 숫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100, 1,000, 10,000 등의 표시에 ‘一’을 붙이는가의 여부, 십진법의 단위를 ‘十, 百, 千’ 등의 문자로 표시하는가, 아니면 수의 자릿수에 따라 표시하는가, 십진법의 단위 중 빈 자리를 ‘零’으로 표시하는가, ‘〇’으로 표시하는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는가 등 여러 가지 수 표기 방식이 확인됐다. 이러한 변이 양상은 기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여 『독립신문』이 수량적 정보에 대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독립신문』은 최초의 순한글 신문으로서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이 연구는 후대로 오며 점차 증가한 한자 표기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국문 전용을 천명했던 『독립신문』의 방향 전환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독립신문』에 쓰인 한자의 거의 대부분은 수 표기에 쓰인 것으로 이때 한자는 조선시대의 한문 또는 국한문으로 된 문헌에 쓰인 한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독립신문』은 우리말을 적기 위한 주된 문자 체계로서 한글의 사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뒤에 수량적 정보에 대한 전달력 향상을 위해 숫자 체계로서 한자를 도입한 것이다.

오늘날 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지만 수를 적는 데에 별도의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매우 외래적인 생각이었다. 한글과 한자 숫자의 사용은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실현됐던 알파벳과 아라비아숫자의 관계에 대응된다. 일찍이 『독립신문』은 논설을 통해 아라비아숫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지만 당장 국문판에 이를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 표기에 한자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일반 어휘를 적는 문자와 수를 적는 문자를 구별했고 이러한 이중 문자 체계의 사용은 후일 아라비아숫자의 도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용운·김용국, 『한국 수학사: 수학의 창을 통해 본 한국인의 사상과 문화』, 살림출판사, 2009.
- 김인선, 『서재필과 한글 전용: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20(1),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6, pp.89-107.
- 김형철,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나은미, 『<독립신문>의 표기법 연구』, 『한성어문학』23, 한성어문학회, 2004, pp.91-115.
- 신창순·지춘수·이인섭·김중진, 『國語表記法の展開와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우인혜, 『<독립신문>의 표기법 연구: 종성표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3, 한국언어문화학회, 1985, pp.303-332.
- 이기문,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현종민 편 『서재필과 한국 민주주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pp.44-66.
- 이익섭,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정승철, 『개화기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원, 1999, pp.8-59.
- 채 백, 『『독립신문』의 참여 인물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36,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pp.135-161.
- Fischer, S. R., *A History of Writing*. London Reaktion Books Ltd, 2001.
- Coulmas, F., *The Writing system of the World*. Blackwell, 1989.

Abstract

Chinese Characters in *Dongnipsinmun*  
- Rediscovery of Chinese Characters as  
a Numeral Writing System -

An, Ye-Lee

Although *Dongnipsinmun*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the first Korean newspaper exclusively written in Hangul, it saw an increase of Chinese characters with the lapse of time. While Chinese characters were usually added after Hangul transcriptions, those representing numerals came to substitute Hangul. This substitution emerged from September 26th, 1898, and continued until the newspaper was discontinued on December 4th, 1899.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y *Dongnipsinmun* came to adopt Chinese characters, especially in the area of numerals. Chapter 2 examines changes of editorial policy regarding Chinese characters and numerals and reveal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adoption of Chinese numeral characters. Chapter 3 argues that the transition from Hangul to Chinese characters when writing numbers reflects the rediscovery of the efficiency of Chinese characters as a numeral writing system by scholars of the time. Chapter 4 describes the variations shown in the use of Chinese numeral characters in *Dongnipsinmun*.

Key Word : *Dongnipsinmun*, numeral, number, orthography, writing system

안예리

소속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주소 :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217호

전화번호 : 02-2123-7532

전자우편 : yelee.a@gmail.com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